

조선 건국 초 고려 속가 수용 상황과 변개*

김 래 덕**

차 례

- | | |
|---------------------------------------|---------------------------------|
| I. 서론 | IV. 조선 건국 초 고려 속가의 변개 내용과
방향 |
| II. 조선 건국에 따른 반 고려적인 조처와
제도의 개혁 | V. 결론 |
| III. 조선 건국 초 통치계급의 고려 속가 이
용과 그 배경 | |

I. 서론

『高麗史』권 71 악 2에 제목과 함께 창작 동기와 내용의 개요만 한문으로 소개되어 전하는 가사 부전의 고려 속가 수는 겨우 30 여 편 뿐이며, 조선에서 악장으로 사용된 고려 속가로 『악장가사』나 『악학궤범』, 『시용향약보』에 내용이 국문으로 기사되어 전하는 노래는 더욱 적어 20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 속가 중 <쌍화점>을 비롯하여, 음설지사로 지목되어 세종 이후 조선 유학자들에 의하여 배척받았던 일부 고려 속가의 가사 내용이 이성계와 정도전 등

* 본 논문은 2003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 창업자들과 『고려사』 편찬자들에 의하여 조선 건국 초에 왜곡 변조된 후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내재함을 본고에서 주로 논급하려 한다. 즉, 고려 속가들 중에서 『고려사』 학지의 가사 부전 노래들은 이 사서 편찬 시에 실제로 존재했을 많은 고려 속가 중에서 취사선택된 것들이며, 또 가사 현전 노래 중 몇 편은 조선 건국 초¹⁾를 전후하여 역성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조선 창업자들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그 내용이 왜곡 변개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위되고 있는, 세종과 성종·중종 대에 이루어진 국문 기사 고려 속가에 대한 변개는 태조 이성계 재위 시에는 음란성 시비 없이 사용된 노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조선 건국 초의 변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 하겠다.

고려 속가들 중에서 왕과 상층계층에 대해 고발성이 짙은 음설(淫褻)의 노래는 고려 궁중에서 악장으로 사용될 때의 내용과는 다르게 조선 건국 초에 그 내용이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쌍화점(雙花店)>·<후전진작(後殿眞勺)> 등과 같이 가사가 음설하다 하여 지탄을 받았던 남녀상열의 노래 중 일부는 고려 궁정에서 악장으로 불려질 때와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므로 이에 대하여도 함께 논급하고자 한다.²⁾

이러한 제 문제를 고구하기 위하여 조선 건국 초 창업자들이 결행했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여러 혁신적 처방과 그들이 견지했던 음악관, 그리고 속가의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살필 것이며, 이것을 본고에서는 주된 논거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 등의 문헌에서는 그 성격의 특성상 조선 건국 초 『고려사』 학지 게재 가사 부전의 고려 속가와 가사 현전 고려 속가의 내용 변개와 수용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

1) 본고에서 필자가 말하는 ‘조선 건국 초’는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운위되는 ‘조선 초’ 개념과는 서술의 편의상 다르게 잡았다. 본고에서는 대체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재위에 있었던 기간(1392년~1398년)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며 세종과 성종, 중종 대는 제외된다.

2) 조선 초기 악장으로 사용된 노래 중에는 우리가 고려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 시대에 창작된 조선의 노래도 더러 있지는 아니할까 하는 의문까지 들기도 한다. 이는 변개의 수준을 넘는 새 악장 창작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3) 고려 속가 중 조선 건국 초 창업자들에 의하여 내용이 변개되었을 가능성이 있

II. 조선 건국에 따른 반 고려적인 조치와 제도의 개혁

이성계와 정도전 등 조선 건국자들이 개국 초 고려 속악에 대한 왜곡 변개에 관하여 논급하기 전에, 먼저 건국 초에 이들에 의하여 정치·경제·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잡다한 변혁과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고려 속악을 산개하여 활용한 것도 결국 조선 창업자들이 건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건국 초 창업자들이 착수한 모든 제도개혁이나 조치는 조선 건국의 완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이념의 기치로 내걸었던 유교의 정명사상(正明思想)이나 인사상(仁思想)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에서의 정치·사회적인 개혁조치나, 역사 왜곡 등의 여러 극단적인 처방까지도 서슴지 않고 획책, 실행했던 것이다. 그만큼 국가의 창업과 수성이라는 대명제를 능가하는 절대적 과제나 명분은 그들에게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창업자들은 다방면에서 나타난 고려 왕조의 모순과 불합리, 그리고 그 적폐를 단숨에 척결하려 함과 동시에 각종 회유책도 함께 내놓음으로써 신왕조에 대한 불만계층인 고려의 구신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선무하려 했다. 이는 제도의 급속한 변혁에 의한 민중들의 불안 심리와 동요를 막기 위한 강온 양면의 전략으로, 이성계가 즉위교서에서 국호를 그대로 고려로 하고⁴⁾ ‘의장과 법제도 모두 전조(前朝)의 것을 따른다(儀章法制一依前朝故事).’고

는 노래의 범주에 모든 속가가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조선에서 음설 지사로 지목되어 배척받았으며, 그 내용에 고려왕 등 상층계층의 음란성과 이에 따른 비행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쌍화점>이나 <후정진작> 등 일부 남녀상열 지사로 한정된다고 생각한다. 또 본고에서는 주로 조선 초의 정치와 경제, 사회적인 상황 등을 근거로 삼아 논지를 전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작품의 내용을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논증하는 것은 소홀해졌다. 우선, 본고가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다음 기회에 이 논의를 더욱 확장하거나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이다.

- 4) 조선이라는 국호 사용은 명의 승인 문제도 있었지만 건국 초에는 숭령이는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라고 볼 수도 있겠다. 결국 조선이라는 국호는 태조 2년(1393) 2월 15일부터 사용하였다.

한 점 등이 그 한 예라 하겠다.

그러면서 신왕조는 창업의 필연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거를 면밀하게 개발하여 민중들에게 널리 유포·주지시켰다. 이런 까닭으로 태조 원년 10월에는 태묘조성도감(太廟造成都監)을 설치, 고려의 종묘를 헐어버리고 새 왕조의 종묘를 세우는 일을 시발로 본격적인 신구대체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명으로부터 국호의 승인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고려의 부정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극대화하여 이를 선전하였다. 즉, 고려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지워버리면서 다른 의미나 새로운 ‘대체가치(代替價値)’로 치환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⁵⁾

먼저 이성계 등은 조선의 창업을 실현하고 이를 지켜가기 위하여 유이민(流移民)에 불과했던 그의 선대 가계와 자신에 대한 신비화 작업을 하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일 수 없는 고려의 역사적 진실까지도 왜곡 날조했다.⁶⁾ 그리고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후에 요동정벌의 주창자이며, 영비(寧妃)의 아버지인 최영을 귀양 보내고 우왕을 폐위시켜 건국에 현실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했다.

5) 사실 조선의 경우 고려 왕조를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일부의 불만 계층이나 소외 세력을 제외한 기존 고려 백성의 의식을 완전히 전환시켜 고려에 대한 부정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치 제도나 사회 구조, 경제의 틀, 이념과 사상 등 고려의 것을 그대로 계속 답습하는 것은 신왕조로서는 더욱 피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전대 고려의 것에 대한 선별적인 수용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는 국호를 당장 고치지 않고 일정 기간 그대로 고려라고 한 점과 고려 구신들을 끈질기게 회유하려고 한 한편, 고려 분위기의 청산과 종언을 위하여 고려 왕조의 왕씨들을 강화나 거제 등 섬으로 분송시키면서 수장을 획책한 대조적인 사실 등을 봐도 이는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다.

6) 이는 태조의 선대인 목조·익조·도조·환조 등의 혈통에 대한 과장된 설화적 성격의 첨가로 인한 신비화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작업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이성계의 조상은 고향 전주로부터 전전하다가 함흥에 정착하여 살던 유이민이었다. 그러던 중 그의 부친 이자춘이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 정벌에 내용하여 공을 세워 동북면병마사에 임명되므로 크게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다. 조선의 태조가 된 이성계는 이자춘의 둘째 아들이다. 이런 가계에 대한 신화적 윤색이 가미되어졌으나 이 때는 이미 설화적인 사교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민중들의 의식 속에서 많이 퇴조된 시점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요소는 앞 시대인 고려 때보다는 많이 제거된 상태라 하겠다.

이런 일들은 고려를 타도하고 실권을 쥐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권한을 이용하여 “생명을 탕화(湯火) 속에서 건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구가세족(舊家世族)이나 중소지주적 경제기반을 가졌던 정주 학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⁷⁾ 이색 등 온건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왕조 창업의 실질적 힘이 된 사전개혁(私田改革)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는 권문세족과 사원이 갖고 있던 막대한 농장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명실상부한 구질서의 완벽한 파괴요, 신질서의 수립이었다. 그러다가 공양왕 3년(1391)에 새로운 토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科田法)을 공포하여 결국 혁신적인 토지개혁을 결행했다.⁸⁾

또 성리학을 이념의 궤대로 삼아 고려에서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 500여 년간 모든 영역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던 불교를 멸륜해국(滅倫害國)의 도라 하여 배척했다. 그리고는 심리적 반전과 쇄신을 꾀하기 위하여 사대부 개혁론자들이 내걸었던 송유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 성리학이 불교나 도교의 자리를 대신하여 조선의 지배이념, 즉 새로운 국가의 정신적 틀로 자리 잡게 했다. 이 일은 앞에서 언급한 정치, 경제적인 혁파와 마찬가지로 기존 고려 지배계층의 와해를 초래케 하는 일대 사건으로서 사실상 고려의 정신적 기반을 뒤엎어 새로운 정신을 창출케 하는 의식개혁의 한 작업인 셈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식 개혁 작업은 태조 이성계가 무학(無學)이나 조구(祖丘) 등 승려를 왕사나 국사로 봉하여 가까이 한 것과는 대조적인 일로서, 『불씨잡변(佛氏雜辨)』이나 『심기리편(心氣理篇)』⁹⁾ 등을 지어 불교를 폄훼한 정도전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실행되었다.⁹⁾

그러면서 이성계 등은 잔존하는 반대 세력에 대한 축출도 함께 진행했는데,

7) 한영우, 『鄭道傳의 人間과 社會思想』, 『韓國古典심포지움』 2집, 일조각, 1985, 211쪽. 참조.

8) 이기백, 『한국사신문』, 일조각, 1981, 198쪽. 참조.

9) 이종익, 『정도전의 關佛論 批判』, 『불교학보』, 1971, 286~294쪽. 참조. 정도전이 불교를 배척하고 억압하기 위하여 저술한 책들이 『심기리편』(心氣理篇)과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이다. 이들 책들은 불교를 배격해야 된다는 목적의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론 그 자체에는 편견과 왜곡과 오류가 많으나 새 왕조의 정신적 기틀이 되고, 불교배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들 책들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인 태조 2년과 동왕 7년에 각각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영을 유배지에서 살해한 것과, 정적 조민수를 유배시킨 것 등이다. 또한 이색·변안렬 등의 잔재 세력을 권력 일선에서 축출하고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시살함으로써 마침내 공양왕 4년(1392), 조선을 건국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조선이 건국되어 국가의 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국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일거에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최영이 사형을 당하던 날, 도민(都民)이 저자를 폐쇄했는가 하면, 길거리의 아이나 여염집 부녀자까지 다 울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최영과 같은 구신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정몽주 죽음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게 전개되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조선 건국 직전은 물론이고, 직후에도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정서가 상당히 만연했음을 알려 준다. 즉, 고려가 이미 만회할 수 없는 민심 이반 현상의 와중에 놓여 있어 멸망하긴 했어도 일부 지배계층이나 일반 민중들의 고려에 대한 향수가 그래도 질게 남아 있는 처지였으므로 이들에 의해 형성된 반 이성계 세력이나 분위기, 그리고 난무하는 유언비어는 개국파들에게 지속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¹⁰⁾

원래 조선 건국의 중심 세력은 앞 왕조의 중심 세력인 상층 사대부나 유신들이 아니라 사대부 대열에서 낙오될 위기에 처한 하층 사대부들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새 왕조는 각계각층의 보다 넓은 지지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¹¹⁾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언책이나 새로운 제도의 창안은 물론, 그것이 설령 혁명의 논리에 맞지 않아 배제의 대상이었던 것들이라도 새 왕조의 체제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다면 일단 수용하여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히 배격하든지 왜곡하면서 고려에로의 회귀심리를 민중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해 나가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건국 후에도 여러 후속 조처들이 이루어졌다. 왕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는 동시에 공양왕과 조선 창업에 계속 반대하여 참여하지 않았던 개

10) 태조 원년 9월 이부와 허해 등이 이성계에게 불리한 요언을 퍼뜨려 민심을 현혹케 했다 하여 유배시킨 예를 들 수 있다.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정월 무오 조 참조)

11) 한영우,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6쪽. 참고.

경 부조현의 50 여 집, 그리고 개풍 광덕산록 두문동 72현의 자손을 평민으로 전락시켜 상업에 종사하게 했다. 또한 왕씨 일족을 강화와 거제 두 섬으로 분송했다가, 뒤에는 왕강 등 왕씨 일족을 해중에 빠뜨려 죽였다. 또 새 왕조의 정치적 안정에 장애요소이기도 한 공양왕과 그 두 아들을 결국 교살하는 등 왕씨 일족들을 가차 없이 제거하여 후환에 철저히 대비했다.¹²⁾

똑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려 후기 왕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의 실정과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지나친 폭로,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설화나 민요의 의도적 조작이나 수집, 유포라 할 수 있다.¹³⁾ 예컨대 그들이 공민왕과 우왕을 변태적인 음행과 실정만을 저지른 왕으로 부각시킨 것과 같은 기록처럼 『고려사』에는 역사적 현실과 다르게 왜곡 기술된 부분이 많은 편이다.

그들은 우왕과 창왕을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돈의 아들로 왜곡시켜 신우(辛禰)·신창(辛昌)으로 부르면서 폐가입진(廢假立眞)이란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폐위시켰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을 『고려사』의 반역 열전 편에 편입시켰는데 이런 일련의 조치는 조선의 창업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¹⁴⁾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의 기록 내용이 진위 여부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하려고 하는 『고려사』~학지 속각 부분과 주로 관련하여 조선 건국 초 고려 속가의 수용과 내용 변개는 이런 까닭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I. 조선 건국 초 통치계급의 고려 속가 이용과 그 배경

왕조 교체기에는 정치와 경제적인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심의 향방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2, 탐구당문화사, 1995, 30쪽. 참고.

1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I, 1989, 지식산업사, 283쪽. 참고.

14) 이병도, 『한국사』~중세편, 을유문화사, 1980, 670~671쪽. 참조. 그리고 우왕과 창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고려사』~열전 반역 조의 신우(辛禰)와 창(昌), 그리고 신돈 전과 『태조실록』~권291 흥무 23년 정월 계미 조 등에 나와 있다.

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를 와해시킨 조선 건국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민심의 효과적인 수습과 다스림이 큰 과제였다. 그것은 “하층의 백성은 지극히 약하긴 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써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배반하게 된다.”¹⁵⁾고 강조한 정도전의 생각에서도 민심의 수습과 다스림이 그들의 큰 과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전조의 음악인 고려 속악에 관하여 이들은 필연적으로 여러 조처들을 취하여 이용했다고 믿어진다.¹⁶⁾ 즉, 이들은 고려 속악을 왜곡 변경하든지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했을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특히 고려 멸망의 필연성을 잘 드러내 주는 고려왕들의 퇴폐적 면모와 사회 부패상이 중심인 내용의 민요를 취택하든지,¹⁸⁾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속가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고려 속가에 대한 단순한 배척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산개(刪改)하거나 새로운 가사로 치환시켜 연향이나 적절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15) 『삼봉집』 제 13권 조선경국전 상의 정보위(正寶位) 조.

16) 고려 멸망 직전에 고려의 왕립 음악기관은 전악서와 아악서였는데, 이들 기관은 이태조가 왕위에 즉위한(7월 17일) 직후 태조 원년 7월 28일 문무백관의 관제를 선포했을 때 조선의 왕립음악기관으로 일단은 계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건국 직후에는 고려의 음악을 담당했던 악사나 악공들이 종묘제향이나 연향에서 속가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왕자(王者)는 공(功)이 이루어지면 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예기』 악기의 전통적인 음악관에 의하여 정도전 등은 새로운 악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17) 지금까지 김문태(『고려속악의 조선조 수용양상』, 『한국시가 연구』 5, 1999. 158~189쪽) 등 조선조의 고려 속악 수용에 대한 고찰은 주로 성종과 중종 대의 고려 속가에 대한 산개와 배척, 그리고 그것의 수용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18) 조선 건국 이전의 민간 음악이 조선 초에 이미 궁정연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세종 15년 9월 예조 계문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이로 보아 조선 초부터 계속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성악의 이치는 시대 정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습도감의 향악 50 여 편의 노래는 신라·백제·고려 때의 민간 언어(俚語)로서 그래도 그 당시의 정치의 득실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죽히 권계가 됩니다.(“禮曹啓聲樂之理今慣習都監鄉樂五十餘聲竝新羅百濟高麗時民間俚語猶可想見時政得失足爲勸戒我朝開國以來禮樂大行.”)

조선의 창업자들이 고려 음악, 특히 그들이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배척하려 했던 율관성이 짙은 고려 속가까지도 건국 초에 아무 논란 없이 사용한 것은 고려를 건국할 때 왕건 등 고려 창업자들에 의해 삼국의 속악이 정치적으로 적극 수용된 것보다 더한 목적성을 띤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왕을 비롯한 왕조의 통치계층들은 건국이나 수성, 그리고 평소 그들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음악의 이용에 전력을 다했다. 먼저 이웃 중국의 경우를 소략하게 살펴본다.

중국의 통치계층은 예악의 영향이나 역할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통치계급들은 음악을 자신들의 통치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은 민중의 음악을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왜곡 해석하여 이를 독점 한 채 정치 현실에 이용했다.¹⁹⁾ 이는 음악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수도 있고, 맺혀 있는 결정적 정치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중국인들 음악관의 한 표현이라 하겠다.

특히 음악 관련 기록이 산재해 있는 『시경』이나 『논어』, 『예기』 등 음악에 관한 기록에서도 치국과 관련된 악의 효용성이 논급되고 있다. 『모시』의 서(序)에 “정치(治)의 잘잘못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에는 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²⁰⁾고 말하고 있으며, 『논어』 태백 편에는 “시로써 일어나고 예로써 서고 악으로써 완성된다.”²¹⁾고 하였다. 그리고 『예기』 권제 19 악기(樂記)에는 “악은 천지의 화순이며 예는 천지의 차례이며”²²⁾, “예는 민심을 조절하지만 악은 민성을 순화시킨다.”²³⁾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악은 궁극적으로는 예와 정(政), 그리고 형(刑)과 동일하다.”²⁴⁾고 했다.

19) 양인리우(이창숙 역), 『중국고대음악사』, 솔, 1999, 69쪽. 참조.

20) “故政得失動天地感鬼神莫近於詩先王以是經夫婦成孝敬厚人倫美教化移風俗.”

21) “興於詩立於禮成於樂.” 이외에도 陽貨 편 등 여러 곳에 음악과 관련된 공자의 견해가 다수 있다.

22) “樂者天地之和也禮者天地序也…樂由天作禮以地制過制則亂過作則暴明於天地然後能興禮樂也.”

23) “禮節民心樂和民聲政以之行之刑以防之禮樂刑政四達而不悖則王道備矣.” 『예기』 권 19 악기 조.

24) “禮以道其志樂和其聲政以一其行刑以防其姦禮樂刑政其極一也所以同民心而出治道也.” 『예기』 권 19 악기 조.

이러므로 중국 쪽에서는 일찍이 순 임금의 악무를 이용하여 이민족인 묘족까지도 순화시키려고 하였으며,²⁵⁾ 중국 주대(周代)의 통치자들은 악무의 역할을 특별히 중하게 여겨 고급 악관들을 시켜 자신들의 의도를 악무로써 선전하고 백성들을 교육하기도 했다.²⁶⁾ 특히 주공은 그의 조카인 성왕을 경계하며 올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시경』~『대아』에 있는 <문왕(文王)>이나 <대명(大明)> 등 여러 시편을 지어 이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전조인 당 나라의 교방악을 송이 적극 수용하여 활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예악 면에서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을 철저히 하고도 심대하게 받았던 조선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²⁷⁾

그러면 우리나라, 특히 조선 시대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었던 음악관을 그 활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음악의 대중 교화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관념은 고대 우리나라 선인들의 음악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먼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선사의 기술²⁸⁾과, 같은 책 권2 가락국기 조나 권5의 월명사 <도술가> 조나 용천사의 <혜성가> 등의 많은 관련 기록을 들 수 있다. 가락국기 조의 <구지가>는 주술에 능한 김수로가 노래의 주술적인 효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등극했음을 말해준다²⁹⁾. 그리고 특히 <도술가> 조의 부대기록에 “향가는 천지귀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³⁰⁾라고 한 점으로 볼

25) 이와 같은 음악관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악사나 악기 등을 주변국들에 보내거나 전달하기도 했으며, 더러는 주변국들의 음악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연례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삼국 시대 등 우리나라 음악에 관하여 『삼국지』~『위지 동이전』이나 『후한서』·『수서』~『동이전』 등 여러 사서에 기록하여 설명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6) 양인리우(이창숙 역), 앞의 책 71쪽. 참조.

27) 이에 대한 잡다한 예를 들은 피하겠지만, 『악학궤범』에 나오는 음악의 효용이나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은 『예기』~악기나 중국의 다른 문헌에 나오는 이론을 집중적으로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한 예가 될 것이다.

28) 일연은 이 책의 권1 기이 제1에 “대체로 옛날 성인이 예악으로써 나라를 일으키고 인으로써 가르침을 베푸는데(大抵古之聖人方其禮樂興邦仁義說教)…”라 적고 있다.

29) 『삼국유사』~권 제3 탐상 제4 어산불영(魚山佛影) 조에 김수로왕이 나찰녀와 돌룡의 해악을 주술로써 막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수로가 주술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보겠다.

때 음악으로써 천지의 신명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교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후대인 고려의 태조 왕건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이나 이성계 등 조선 건국자들에게도 기본적인 면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승되었다.

고려에서도 고려의 속악과 함께 신라와 백제, 고구려 지방의 중요한 속악을 악장으로 사용했음이 『고려사』²⁾ 삼국 속악 조에 기록되어 있다.³¹⁾ 이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삼국의 각 지방음악을 사용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던 지방호족들의 심리 속에 잔존해 있을 수 있는 신왕조 고려에 대한 이반감을 줄이면서, 그들과 정서적 융합을 꾀하고 일체감을 강화하고자 삼국의 속악을 사용하였던 것이다.³²⁾ 이에 는 고려에 의하여 병합되거나 망했던 신라와 백제·고구려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망국의 한을 그들의 정서가 뻗 지방 음악을 철폐하지 않고 고려 궁정에서 고려 음악과 같이 사용해 줌으로써 일체감 내지 동질성을 인식시키려고 한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라 보겠다. 이는 왕건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천호산에 개태사를 창건, 미륵삼존불을 조성하여 이 지역 민심을 수습하려고 한 종교적인 노력이나,³³⁾ 또 그가 삼국을 통일하는 전후과정에서 지방호족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왕후나 빈으로 삼은 결혼정책과 같은 정치적 계산과도 동계의 차원이라 하겠다.³⁴⁾ 이로 볼 때 조선 창업자들이 조선건국 초 고려의 속악을 악장으로 사용한 배경도 고려가 삼국의 속악을 사용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³⁵⁾

30) “羅人尙鄉歌者尙矣蓋詩頌之類歟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

31) “新羅百濟高句麗之樂高麗竝用之編之樂譜故附着于此詞皆俚語.”

32) 김학성, 『고려 가요의 작자층과 수용자층』, 『한국학보』 3집, 일지사, 1983, 224쪽.; 노지영, 『삼국 속악가사의 고려조 수용 연구』, 부산대 대학원, 1999, 24쪽. 참고.

33) 김삼룡,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1983, 152쪽.

34) 왕건은 결혼정책에 의하여 신라 경순왕에게 그의 장녀 낙랑공주를 시집보냈는가 하면, 각 지방호족들의 딸들을 왕후나 빈으로 삼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라의 세력과 결속을 꾀하고, 지방호족의 세력을 상호 견제할 수 있어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 결과 왕건에게는 왕후가 6명이고, 빈이 23명이나 되었다.

35)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힘과 지혜 등, 전략적 차원에서 우

다음에 조선 초 지배계층들의 음악관을 한 번 보기로 한다.

『고려사』권 70 악1에 “음악은 그것으로 순미한 풍속과 교화를 수립하고 조종의 공훈과 은덕을 형상화한다.”³⁶⁾라고 한 사관들의 생각이나, 『악학궤범』 저문에 “같지 않은 소리를 합해서 능히 하나로 만드는 것은 임금의 지도 여하에 달렸다. 지도함에는 정(正)과 사(邪)의 다름이 있으니, 풍속의 성함과 쇠함도 여기에 달렸다. 이따로 악의 도가 정치와 크게 관련을 갖는 것이다.”³⁷⁾고 한 기록 등도 그들이 음악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음악관의 일단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초인 태조 2년(1393)에 정도전은 <문덕곡>·<신도가>·<납씨가>·<정동방곡>·<몽금척>·<수보록>·<궁수분> 등의 새로운 악장의 가사를 지어 조선 건국의 필연성과 이태조의 공적을 집중적으로 찬양했다.³⁸⁾ 정도전은 악은 당대는 물론이고 후세까지도 피지배자들에게 지배자의 존엄과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으며,³⁹⁾ 자신이 태조 3년에 저술한 『조선경국전』 장 악조에서 공덕이 이루어지면 악이 지어지고 악을 보면 공덕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악은 올바른 성정에서 근원하여 성문을 빌려서 표현되는 것이다. 중묘의

위를 접하여 통일의 결정적 상황을 만들었다. 그 결과로 건국에 성공했으므로 고려 태조 왕건은 나름대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민심을 얻었으며, 지방호족들을 중심으로 한 비호세력의 지지와 심리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서 건국 후에는 반대 세력에 의한 장애는 조선보다 오히려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고려와는 사정이 달랐다. 치열한 전쟁을 벌여 적대 세력을 굴복시키고 새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무혈혁명이라 할 정도로 술수와 지모와 계책에 의하여 고려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으므로 조선건국 후에도 지지와 비지지 세력으로서의 양분됨이 심화될 수 있었고, 그 저항도 강하면서도 지속적이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전조를 부정하는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6) “夫樂者所以樹風化象功德者也 高麗太祖草創大業而成宗立郊祀”.

37) “…能合其聲之不同而一之者在君上導之如何耳所導有正邪之殊而俗之隆替係焉此樂之道所以大關於治化者也…”.

38) 태종 2년(1402)에는 하륜이 <근천정>과 <수명명> 등 두 악가를 창작했다.

39) 한홍섭, 『한국의 음악사상』, 민속원, 2000, 84쪽.

음악이라는 것은 조상의 성덕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고 조정의 음악은 군신 간의 장경(莊敬)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향당과 규문에서까지도 각기 일에 따라서 악을 짓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유계에서 악을 사용하면 조상이 감격하고 명계에서 사용하면 군신이 화합하며, 이를 향당과 방국에 확대하면 교화가 실현되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악의 효과는 이렇게 시원한 것이다.…또 문덕·무공의 곡을 새로이 지었는데, 이것은 전하의 거룩한 덕과 신기로운 공을 서술하여 창업의 어려움을 형용한 것이다. 이 악곡에는 고급의 문장이 갖추어져 있다. 이른바 공덕이 이루어지면 악이 지어지고 악을 보면 공덕을 알 수 있다.”⁴⁰⁾

그런가 하면 앞서 언급한 『세종실록』 권61, 15년 9월 신묘 조 또한⁴¹⁾ 세종 때 위정자들의 음악에 대한 생각이므로 참고로 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정도전이나 뒤시대 세종 때 위정자들의 음악관은 새 왕조의 기반을 다지거나 민심을 회귀시키기 위하여 조선 건국 초 새로운 악장의 창작은 물론이고, 고려 노래들의 내용을 왜곡하여 수용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을 주는 한 근거가 된다.

물론 조선의 건국과 함께 고려 속악에 대한 손질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시작됐지만, 기실은 고려 속악에 대한 고려 말에 부분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이미 있었다.

고려 말 궁정에서 방종과 음란성이 짙은 퇴폐적 노래와 향연을 중지할 것을 시중의 자리에 있던 최영이 우왕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었고⁴²⁾, 또 이태조의 위화도 회군 후 고려 조정에서 내용이 비리한 속악을 연향에 사용하는 데 대하여 논란이 이미 있었다. 고려 말 개혁논자이며 조선 건국에 공을 많이 세웠던 조준 같은 이는 비천한 속악을 연향에서 계속 사용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탄조로 말했음이 『성호사설』에 전해온다.

“본조의 풍악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 반드시 당 나라의 음악을 먼저 아뢰

40)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의 문집 『삼봉집』 권제 13에 들어 있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생각을 알게 하는 글이다. “樂者本於性情之正而發於聲文之備宗廟之樂所以美祖考之盛德朝廷之樂所以極君臣之莊敬以至鄉黨閭門莫不因其事而作焉故幽則祖考格明則君臣和惟之鄉黨邦國而化行俗美樂之效溼矣.”

41) 주 18)참조.

42) 이병도, 앞의 책, 683쪽 참고.

고, 다음에는 광대의 가부로 계속하는데 이는 중정과 화평의 뜻에 어긋나 예악의 근본을 잃은 것이다. 중국의 의례를 상고하건대 다만 영인을 시켜 풍악을 아뢰게 하고 창기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원컨대 그 법을 실행하여 창기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⁴³⁾

위와 같은 조준의 말은 고려 말 조선 건국이 무르익을 무렵, 음란성이 짙은 속가들을 궁정 연향 등에서 계속 사용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이런 유형의 속가는 조선의 창업자들이 가장 금기시하던 음풍으로 유교의 이념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고려의 말기적인 실정이 담긴 내용이다. 이처럼 조준 같은 사람의 시무소(時務疏)가 있었는가 하면, 조선 건국 초기에도 기악(妓樂)을 혁파하지는 논의가 있었다.⁴⁴⁾ 그리고 중국은 왕조를 멸망케 한 ‘북리(北里)의 춤’이나 ‘미미의 음악’과 같은 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 녹인다는 악무의 영향과 효과를 일반관료들이면 다 알고 있었을 때이고, 또 예악에 정통한 정도전은 “음악이 사치스럽고 방종할수록 백성들이 땃히고 쌓여 즐거워하지 않고, 군주의 지위는 갈수록 미미해진다.”⁴⁵⁾는 이치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런 것을 방관만 한 채 그대로 사용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양왕 등 고려의 왕을 임의대로 폐위시킨 이 태조나 정도전 일파가 그런 음설의 음악을 배척하려고 용심했다면 이 정도는 못 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건국 후에는 이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연향에서 영인(伶人)들로 하여금 고려의 속가를 부르도록 한 것은 고려의 멸망의 필연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선 개국 초에도 고려의 부패가 적나라하게 노래된 고려 속가들을 당분간 사용할 뿐, 오히려 물리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사가 전하는 고려 속가 가운데 남녀상열 내지 음설지사로 볼 수 있는 <서경별곡>·<정읍사>·<쌍화점>·<만전춘별사>·<이상곡>과 가사 부전의 <후정화>, 그리고 불교 내용의 무애정재 등 고려 음악들은 조선

43) “太祖回軍之後趙浚時務疏云本朝樂節凡宴饗賓客必作唐樂繼以鄉樂倡優歌舞不合中和失禮樂之本矣按中朝廷儀只使伶人按樂倡妓不與焉.” 『성호사설』 권15 인사문 <헌선도>.

44) 『성호사설』 권23 경사문 조.

45) “故樂愈侈而民愈鬱國愈亂主愈卑則亦失樂之情矣.” 『여씨춘추』 중하기 대악편.

건국 초에는 별 말없이 불려지다가 세종 때부터 가사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배척되기 시작했던 것이라 여겨진다.⁴⁶⁾

조선의 창업자들은 조선 건국 직후에는 주로 고려 속가의 기존 음률과 내용, 형식을 그대로 두거나, 또는 음률은 원래대로 보존한 채 내용이나 형식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변개하거나 다시 짜서 악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가>·<정동방곡>·<납씨가> 등 새로운 악장을 다수 창작하여 사용하거나, 더러는 민간의 노래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이렇므로 고려 속가 <쌍화점>이나 <후정화>처럼 고려의 왕과 상층계층의 도덕적 타락상과 부패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들어 있는 많은 노래나, 음설지사로 알려진 <만전춘별사>나 <이상곡> 등은 고려 궁중에서 실제로 불려진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의 건국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원래 속가의 내용을 수정했는지, 고려 때 민간의 유행가요 중에서 취택하여 악장으로 사용한 것 중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불려진 이 노래들이 악장으로 불려졌다면 당연히 다른 속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노래의 제목 정도는 『고려사』⁴⁷⁾악지에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고려사』⁴⁷⁾악지에는 이 노래에 대한 가명이나 관련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 후대인 성종 대에 왕명으로 편찬된 『악학궤범』이나, 편찬자와 그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악장가사』와 『시용향악보』⁴⁸⁾등에만 있을 뿐이다. 다만 <쌍화점> 2연에 해당하는 가사 내용의 일부가 충렬왕 조의 기록에 <삼장>이란 가명으로 한역되어 전해질 정도이다.⁴⁷⁾

고려를 멸망으로 치닫게 했던 요인 중 왕들의 황음연락도 주요한 원인이었

46) 석교와 남녀상열이 내용인 속악 중에서 무애정재는 세종 원년에, 그리고 <후정화>나 <만전춘별사>·<서경별곡>·<쌍화점>·<이상곡> 등은 성종 때, <정읍사>는 중종 때에 이르러서야 음설지사로 문제가 되어 비로소 배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47) <쌍화점>의 2연에 해당하는 <삼장>이 충렬왕 25년 5월에 창작되었다는 『고려사』의 기록 자체가 상당히 의문시될 수 있는 점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조선의 역사 편찬자들에 의하여 『고려사』가 여러 부문에 걸쳐 왜곡 기술되었다는 점을 논급한 다음의 장을, 또 <쌍화점>이 고려 궁중에서 악장으로 불려질 수 없는 내용의 노래라는 점을 언급한 곳을 참고로 하면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은 줄져, 『고려 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인 연구』(국학자료원, 2000.)를 참고.

음은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음란성이 짙은 고려 속가는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 중의 하나로서 멸망한 나라의 음악(亡國之音)인 셈이다. 멸망한 나라인 고려의 속악, 그것도 조선 창업자들 자신이 멸망시킨 고려 교방악인 속가는 그들이 일차적으로 폐기시킬 대상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말이나 조선 건국 초 기악(伎樂)의 혁파가 논의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그것들은 곡연(曲宴)이나 관사(觀射), 행행(行幸)할 때 등 여러 연향이나 행사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조선의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여말이나 조선 건국 초에 음란성이 짙은 내용이 담긴 고려 속가를 배척하지는 일부의 논의가 잠시 제기되었음에도 건국 초에는 오히려 이들 노래를 계속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인 목적과 필요성에서 결국 찾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IV. 조선 건국 초 고려 속가의 변개 내용과 방향

앞 장에서는 조선 창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려 속가의 왜곡 변개에 대하여 조선 건국 초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그들의 음악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조선 초 건국창업자들이 『고려사』 악지 속악에 대한 기술 내용과 가사 현전 속가를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왜곡 변개했으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논급하기로 한다.

조선 창업자들이 고려 속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함에는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에겐 고려 속가의 내용을 변개하여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창케 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등의 방법이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노래의 내용을 왜곡 변개시키는 데에는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의 모든 속가의 내용을 왜곡 변개하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려왕에 대한 송축이나 문물제도의 찬양에 관한 노래는 왜곡 변개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편찬한 악지의 수록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썼으며, 고려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사회성이 짙은 고려 속가나 민간의 노래는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의 변개 내지는 창작

했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그리하여 건국을 전후해서 유행했던 예언적 성격의 민요나 시도 정권 탈취에 적절히 활용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 등의 참설이 나돌기도 한 고려 말에 도탄에 빠진 창생을 이성계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이원수요(李元帥謠)>⁴⁹⁾나 이씨가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목자득국요(木子得國謠)> 같은 참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돌아난 노래로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성계를 위요한 일파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작하여 교묘하게 민중들에게 전파시킨 민요로도 간주할 수 있다.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몇 갈래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첫째, 『고려사』 권 71 악 2에 실려 있는 가사 부전의 속가에 대한 왜곡 내지 변개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려사』는 고려 말 반(反) 고려적 정서가 가장 강한 소유자로 과격한 개혁논자이며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인 정도전과 조준 등이 태조 원년 10월에 왕명을 받아 동왕 4년(1395) 정월에 완성한 『고려국사』를 준거로 삼아 편찬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태종이 우왕 이후의 이 사서 기록이 특히 부실하다 하여 하륜과 남계·이숙번 등을 시켜 수정케 한 것을 시작으로, 세종 때 정인지·김종서 등에 의해 본격적인 개찬을 거친 뒤 조선 건국 59년만인 문종 원년(1451)에야 비로소 『고려사』란 이름으로 편찬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므로 『고려사』는 『고려국사』의 내용이나 기본적 서술 방향, 그리고

48)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조선의 창업자들이 고려의 속가 전부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왕들의 생활 행태를 비난하기에 적합한 음설의 속가들은 그대로 수용하든지, 또는 더욱 그 내용을 강화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쌍화점>이나 <후정화> 등은 그 내용을 왜곡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악지나 다른 『악장가사』~등의 가요집에 있는 모든 고려 노래가 다 논의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49) 『동사강목』과 『동각잡기』에 한역되어 전하기도 하는 『이원수요』의 내용을 참고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서경 문 밖 불이 오니, 안주 성 밖에 연기 이네, 그 사이 오고 가는 이원수는 빨리 와서 우리 창생 구제하소.”

50) 『고려국사』의 찬집을 시작한 시기인 조선 태조 원년 10월은 삼국의 역사인 『삼국사기』를 고려 17대 인종 때에 와서야 김부식이 지은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급하게 서두른 듯한 느낌을 준다. 이도 조선 건국창업자들이 조선 건국의 필연

그것의 편찬 정신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원천적 한계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또 『고려사』 권 71 악 2 속악 조에 “고려의 속악은 여러 악보를 참고로 해서 실었다.”⁵¹⁾고 했는데 이 기록의 ‘참고하다’는 말에는 ‘살피서 생각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편찬자들의 주관에 따라 기존의 악보나 이에 관한 기록이 왜곡 내지 변개, 또는 삭제하거나 선택적으로 취택되었을 수 있는 정황이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⁵²⁾

실제 『고려사』 악지의 속악 조에 근 500 년간 고려 궁중에서 사용한 속악들의 숫자가 30 여 편 뿐인데 비하여, 같은 권에 실려 있는 당악은 오히려 50 여 편으로 상당히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여기에 범패와 불교 음악은 물론 없으며, 속악의 주제나 내용도 다양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고려 불교의 부패와 승려의 성적 비행이 노래된 『삼장』은 수록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조선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도움이 안 되는 노래들은 악지의 수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고려사』 찬자들은 고려 말의 과격한 개혁논자들의 입장이나 견해를 답습하거나, 그들이 올린 상소문 등을 통하여 고려의 실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고려사』에는 고려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음은 필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즉, 『고려사』 열전의 인물 분류 기준도 애매하며, 『고려사』 식화지(食貨志)와 백관지(百官志)에는 오류를 범한 조준의 상소문 일부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해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⁵³⁾ 또 『고려사』 찬자들은 유교적인 관

성과 정당성 확립을 굳건히 하는 데 고려 역사의 찬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절감한 때문이라 여겨진다.

51) “高麗俗樂考諸樂譜載之其動動及西京以下二十四篇皆用俚語.”

52) ‘참고하다’는 한자의 ‘고(考)’는 어떤 대상을 참고할 뿐이지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보겠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황이 어느 정도 전제됨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 악지에 기존의 악보를 ‘그대로 실는다’고 하지 않고 ‘참고하여 실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53) 변태섭,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1982, pp. 85~90. 참조. 여기서는 『고려사 편찬에 있어서의 객관성 문제』·『고려사의 내용분석』 등을 통해 각 지(志)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사』의 내용 변개와 왜곡 등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는 황영호, 민현구 등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점에서 고려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토속적인 풍습이나 불교적인 자료들을 제외하거나 소홀히 다룬 것도 사실이다. 고려의 국가 제사에는 아악 뿐 아니라 고유의 음악인 속악도 같이 사용되었는데도 『고려사』 악지의 아악 조에는 이런 흔적이 전혀 없는 것도 그것을 말해주는 한 근거가 된다.⁵⁴⁾

둘째, 조선 건국자들이 고려 속가 중 어떠한 성향이나 내용의 노래를 제외했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본다.

『고려사』의 기록처럼 충렬왕을 비롯한 고려 후기인 원 복속기의 왕들은 대개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치국의 도를 잘 수행하지 못 했음은 인정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고려 475년간 보위에 오른 34명의 왕 중에는 개국을 한 태조 왕건을 비롯하여 성종과 현종 등, 적극적으로 국토를 확장하거나 선정을 베풀어서 추앙을 받았던 현군도 많았다. 그러므로 조종(祖宗)의 공덕이나 당대 왕의 위업을 기리는 송축의 노래가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정석가』와 같은 정도의 선왕선대에 비견되는 송축의 속가는 다수 연향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세종 때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선왕들의 공업을 기린 것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고려사』 악지 권70 악1의 태묘 악장⁵⁵⁾을 제외하고는 속가 31편 중에는 태조 왕건의 덕을 송양하여 노래한 <장단>과, 어느 왕을 지칭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만수무강과 치적을 기리는 내용의 <풍입송(風入松)> 정도가 고작 있을 뿐 그 외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어떤 특정 군왕의 업적을 송축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금강성(金剛城)>이나 <송산(宋山)>, <동동> 정도는 송축 계열에 넣을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려 4대 광종은 왕권의 강화와 지방호족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이나 과거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화엄의 성상융회(性相融會) 사상까지도 이

54) 변태섭, 위의 책, 80쪽. 참조.

55) 태조 왕건 등 역대 고려왕들의 공덕과 위업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고려사』 권70 악1 태묘악장(太廟樂章) 조에는 태조 제일실인 정성태정지곡(正聲太定之曲)을 비롯, 혜종 제일실 등 9실(九室)의 등가악장(登歌樂章)이 나오고 있다. 이는 예종 11년 10월 처음 제작되었다. 그리고 공민왕 12년 5월 정해에 9실의 신주(神主)를 태묘로 환안(還安)하고 새로 악장을 지었다는데, 태조 1실부터 충목왕 9실까지가 있다.

용하는 등, 전에 없던 특단의 여러 조치를 강구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광종은 왕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강화, 고취시키기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송축의 노래를 창작하여 궁중연향 시에 악장으로 사용하도록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악지 등에는 이런 종류의 속가가 전혀 없다. 이도 속가에 대한 조선 시대의 왜곡 상황을 짐작케 한다.

또한 충렬왕 대의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폐행(嬖倖)들이 왕의 성색을 맞추기 위하여 남녀상열의 노래를 집중적으로 창작하거나 남장별대(男裝別隊)로 하여금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한 상황이었다고 한다.⁵⁶⁾ 이런 경우를 감안하면, 왕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 왕 본인을 기리는 내용의 노래보다 더 적당한 것은 없을 것이므로 남녀상열의 노래와 함께 왕의 덕을 송축하는 속가도 연행되었을 것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왕의 비리를 드러내는 내용의 노래만 존재할 뿐 군왕의 공덕을 칭송한 송축가가 한 편도 없음을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창업자들이 이런 것들은 말살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후 찬란한 고구려의 문헌이 자기들 쪽으로 전달되어 역기능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대부분 불살라버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⁵⁷⁾

그리고 고려와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많이 나면서 고려 왕실과도 직접 관련이 없는, 중국의 주 나라 무왕에 의해 기자조선의 왕으로 봉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 기자의 덕망을 기리는 내용인 <서경(西京)>이나 <대동강(大同江)>과 같은 노래는 오히려 『고려사』~악지에 실려 있으면서, 고려왕들의 위엄이나 공덕을 내용으로 한 악장은 상기 몇 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조선 건국 초 조선창업자들에 의해 고려 속가의 왜곡과 변개가 이루어졌음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아무리 고려 궁중이 도덕적으로 문란하여 정도가 극에 달했다 하더라도 왕을 위시한 상층계층이 향유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노래가 가사 현전 고려 속가 중에 있는데, 이들 노래 역시 조선의 창업자들에 의하여 가사가 변개

56) 『고려사절요』~권22 충렬왕 25년 5월조 참조.

57) “唐李勣既平高句麗聚東方典籍於平壤忌其文物不讓中朝舉以焚之。” 『雅亭遺稿』~권3 장7

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⁸⁾

그 대표적인 고려 속가의 경우가 <쌍화점>인데, 이 노래는 각 연마다 고려 왕을 위시하여 승려와 회회아비, 용 등이 행동의 주체자로 나온다. 그런데 각 연의 중심인물들이 벌이는 행각은 바로 고려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⁵⁹⁾ 이런 내용의 노래가 고려 궁중에서 연행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왜냐하면 충렬왕 등 고려왕들이 아무리 황음연락에 빠졌더라도 왕 자신의 성적 비행이 대상으로 된 노래를 왕 자신이 그냥 듣고 즐긴다는 것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 김원상과 오잠, 석천보 등 폐해들은 왕의 성색(聲色)을 맞추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왕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음설한 내용의 노래를 가져다가 기녀들에게 부르게 하는 것이 맞는 이치다.

이는 이 노래의 각기 다른 연에 나오는 삼장사 사주(社主)의 경우나 회회아비의 경우에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 불교의 타락이 움직일 수 없는 일이고, 승려의 파계 행위가 비밀비재하여 세간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왕사나 국사 제도가 엄존하고, 궁중 향연에 승려의 참여

58) <쌍화점>의 이런 점에 관하여 즐겨 『고려 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인 연구』(국학자료원, 2000.)를 참고.

59) <쌍화점>의 내용이 음란성과 퇴폐성과는 거리가 있는 노래라는 견해도 관점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래 내용이 분명히 전하는 이 <쌍화점>의 각 연들을 음란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른다고 본다. 그리고 김만중이 『서포집』~권 2 악부에서 <삼장>에 대한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나 없는 막연한 지적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그는 같은 곳에서 <삼장>과 <사룡>의 말이 속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종실록』~권 240 21년 5월 21일 조에서 조선의 관료들이 왕 앞에서 아뢰 대로 ‘음설한 가사의 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으리라 본다. 참고로, 야사를 당수 수록한 『대동야승』~권 23 해동잡록 6에 있는 ‘주세붕이 황준량에게 답한 편지’에는 “지금의 악이라는 것은 흔히 음란한 풍속에서 나왔으니, 쌍화점과 청가의 종류들은 모두 사람을 악하게 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들이 어떠한 말들입니까? 풍속을 미미하게 날로 저급한 데로 나아가게 하니, 음란하여 도를 무너뜨림은 차마 듣지 못 할 것이 있기도 합니다. 설령 공자가 살아나도 이런 가악을 추방하지 않겠는지?(今之爲歌者多出於桑濮如雙花店淸歌之東皆誘人爲惡此何等語也使風俗靡靡日氣於下其淫褻敗理至有不忍聞者設使夫子復生其不在所放乎)”라는 내용을 부기해 둔다.

가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삼장사 사주의 성적 타락이 내용인 이 노래를 부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삼장사는 개성에 있던 유명 사찰로 그 세력이 컸다. 이런 판국에 특정 사찰인 삼장사의 주지를 대상으로 <쌍화점>의 2연인 <삼장>과 같은 내용의 노래는 궁중에서 불리지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노래에 나오는 회회아비도 원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둘렀고, 왕을 초칭하여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장순룡 같은 이는 장군직에 오르기도 했다.⁶⁰⁾ 이런 실정인데도 회회아비의 성적 비행이 대상인 내용의 노래를 궁중 연향에서 불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화점』은 고려의 상층 내지 지배계층의 고질적 성적 비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여 건국과 완성에 도움을 받고자 조선 창업자들이 원래 있었던 동명의 속가를 지금 내용의 노래로 변개했든지, 아니면 새로 창작한 신성(新聲)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는 부과되는 세금이 번중한데다 권력자들이 빼앗아 가기까지 하므로 백성들이 고달파서 그 원망의 마음을 노래로 불렀다는 <사리화(沙里花)>⁶¹⁾나 충혜왕 때의 <후전진작> 등 기타 음설스러운 내용의 다른 고려 속가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세종과 성종, 중종 대에 몇 차례 논의되었던 가사 현전 속가의 변개 상황과 그 실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본다.

고려 말에는 음란성과 석교가 주 내용인 궁중 노래에 대한 질타와 비판이 일다가 조선 건국 초에는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한 논란은 희미해지면서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방향의 속가 왜곡과정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세종 성종 대에 이르면서 그것의 왜곡 변개 방향과 양상은 건국 초의 입장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르게 전개되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친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 후 결국 자신이 왕 위에 오른 태종 때에는 이미 고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 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향수나 회고는 더 이상 조선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태종은 즉위 2년에 원주로 유배되어

60) 『고려사절요』 권21 충렬왕 13년 3월 조.

61) 『고려사』 권 71 악 2 속악 조.

공양군으로 봉해졌다가 결국 삼척에서 교살된 폐왕 공양왕을 군에서 왕으로 추봉했던 것이다. 또한 대업 성취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선죽교에서 추살했던 정적 정몽주와 끝까지 고려에의 충절을 버리지 않고 은거했던 길재 등을 고려의 충신으로 현양하고, 섬으로 유배시킨 고려의 왕족을 육지에 나와 살게 한 것도 이와 같이 반전된 상황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때는 길재 그 자신도 그의 둘째 아들이 태종의 부름을 받아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직을 받아야 된다고 훈계하기도 했으니 이것으로도 고려 민심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 시기는 완전히 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돈의 아들로 몰아붙여 우왕·창왕을 신우·신창이라면서 반열에 넣었던 역사 왜곡 현상도 세종 31년에 와서는 바로 잡았는데, 이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런 정황에 따라 건국 초와 같이 반 고려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의 고려 노래를 이제는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세종과 성종 대에 와서는 조선 건국이념인 유교 사상과 정책 방향 등에 반하는 상열이나 상사의 노래를 중심으로 산삭하거나 정리하는 데 본격적으로 손을 대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교에 도움이 되는 속가는 가려서 다시 쓰되, 그렇지 않은 것은 악장에서 제외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1392년 전후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와 기반이 확고하게 잡힌 세종이나 성종·중종 대에 이르러서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원흥(元興)>이나 <안동자청(安東紫靑)>과 같은 속가를 세종 13년에 풍교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용할 것을 건의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²⁾. 그리고 건국 초에는 이런 내용의 가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성종이나 중종 대에 들어와서 속가의 내용이 음설하거나 망탄하다 하여 노래 자체를 완전히 악장의 영역에서 제외시켰거나, 신제 악장 등 다른 노래의 가사로 속가의

62) “慣習都鑑啓元興及安東紫靑調請於樂歌復用元興在東北面和寧屬郡瀕于大海郡人隨海船行商以還其妻迎見悅而歌之紫靑調亦婦人所作言婦人以身事人一失其身人所賤惡故以絲之紅綠靑白反復誓之二曲雖皆載諸樂府然廢而不用久矣今見其詞紫靑調婦人有貞靜自守不爲人所汚元興曲見夫之還喜而歌之正與居士戀相爲表裏皆足以有補於風教誠宜被之管絃俾之勿壤從之.” 『세종실록』 권54 13년 10월 정유 조.

자리를 대체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성종 21년에 권주는 “장악원에서 사용하는 속악은 전부가 신우 때의 가사로 땅국의 음악이므로 연향에 쓸 수 없고, 그 가운데 남녀상열의 가사도 많으니 다 버려야 된다.”고 왕에게 아뢰는 사실이라든지⁶³⁾ <쌍화점> 등 남녀상열의 내용에 대하여 건국 초에는 아무런 논란 없이 사용되다가 성종 21년 5월에 들어서야 <이상곡(履霜曲)>·<북전가(北殿歌)> 등과 함께 내용의 음란성이 문제되어 산개의 대상이 된 사실에서도 더욱 이를 알 수 있다.⁶⁴⁾

원래 『고려사』 권70 악1의 아악 부분에는 “속악은 그 말이 대부분 비속해서 그 중에 심한 것은 다만 그 노래의 이름과 노래를 지은 뜻을 기록한다.”⁶⁵⁾라 했다. 그러나 같은 책 권71 악2의 속악 부분 기술은 “동동 및 서경 이하의 24편은 다 이어를 쓰고 있다.” 하면서도 소위 내용의 비속성, 즉 남녀상열의 가요 내용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으로, 건국 초에 『고려사』가 편찬될 당시까지도 남녀상열의 노래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V. 결론

지금까지 논급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조선의 창업자들은 조선을 건국한 뒤에도 고려 속가를 계속 악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래의 악장을 갑자기 혁파하기는 어려운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활용과 그 필요성에 주요 원인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성계와 정도전 등 역성혁명에 성공한 이들은 건국 후 고려 속가의 원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건국과 수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왜곡 변경하거나,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조선 초의 모든 정

63) 『성종실록』 권236 21년 1월 17일 조.

64) 『성종실록』 권240, 21년 5월 21일 조.

65) “俗謠卽語多鄙俚其甚者且記歌名與作歌之意分類雅樂唐樂俗樂作樂志.” 『고려사』 권70 악1.

치·경제적 제도나 사회의 개혁이 조선의 건국과 수성이라는 절대 목표에 필연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행해졌으며, 또 정도전 등 조선창업자들은 예악의 교화성이나 효용성을 굳게 믿었으므로 고려 속악에 관한 여러 조처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결행했을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이 예악을 중시하여 전대 왕조의 음악이나 민중 노래를 변형시켜 효율적인 통치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나, 고려가 삼국의 속악을 사용하여 삼국 통일의 완성에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원래 고려 속가의 음란성에 대한 비판은 고려 말 최영이나 조준에 의하여도 일찍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직후 건국 창업자들은 고려 속가의 음란성과 이들 가요들의 사용 문제는 정작 논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려의 왕이나 지배계층의 부패와 타락을 드러내는 쪽으로 고려 속가의 내용을 변개하여 사용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일은 『고려사』의 열전 등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객관성의 결여 문제와 관련시켜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며, 또 가사가 현전하는 <쌍화점> 등의 속가 내용이 고려 궁정에서 악장으로 연향되기에는 지극히 부적당한 내용인 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리므로 <쌍화점>이나 <후전진작> 등 고려왕과 지배계층의 부패나 음란상이 집중적으로 노래되고 있는 음설적 내용의 속가는 조선 건국 초에 조선 창업자들에 의하여 동일한 질주에 이종의 내용을 혼합시킨 창작물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 건국 전후에는 여러 비상수단들이 강구되어 전 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태조의 탁월한 능력을 노래한 민요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참요들이 불리어졌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고려의 멸망을 필연적인 것으로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는 일련의 작업도 여말선초 개혁 논자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졌다. 고려 속가의 정치적 이용도 이런 일련의 일 중의 하나이고, 그 결과 새롭게 형성된 노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쌍화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조선 창업자들이 건국 초에는 오히려 반 고려적 분위기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고려 속가의 내용을 변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조선의 국기가 튼튼하게 다져진 세종이나 성종과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인 잣대가 아닌, 유교적인 기준이나 도덕률에 의하여 변

개나 폐지가 논의되었다. 왜냐하면 건국 초와 같은 정치적 방향으로의 왜곡 변개는 이 때는 이미 국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 건국 초의 속가에 대한 왜곡 변개와 수용의 성격은 세종과 성종, 그리고 중종 대의 그것과는 그 차원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 둘은 구별해야 되리라 본다.

건국 초의 고려 속가 변개는 유교적인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건국과 수성이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수용과 변개는 유교 도덕률에 반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건국 초 음설의 내용 쪽으로 산개가 가능하였고, 그 결과 고려왕과 관료계층의 성적 부패가 중심 소재인 음설의 노래 <쌍화점>이나 <후전진작>과 같은 가요가 유교의 이념을 표방한 조선에서 불러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뒤인 세종 과 성종, 그리고 중종 이후에는 오직 유교 도덕률이 가치 결정의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건국 초에는 별 시비 없이 사용된 음설의 노래가 배척의 대상이 되어 결국 다른 노래로 대체되거나 산삭 내지 변개를 당했다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고려 속가, 조선 건국 초, 이성계, 정도전, 음설지사, <쌍화점>, <후전진작>, 음악의 정치적 이용, 음악관, 속가의 왜곡 변개, 『고려사』~악지, 『악학궤범』, 『악장가사』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대동야승』
『조선왕조실록』
『삼국유사』
『삼봉집』
『성호사설』
『시경』
『악장가사』,
『악학궤범』
『예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2·27, 탐구당문화사, 1995.

김명준, 『악장가사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4.

김문태, 『고려속요의 조선조 수용양상』, 『한국시가 연구』~5, 한국시가학회, 1999.

김삼룡, 『한국미특신앙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1983.

김상기,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1961.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김쾌덕, 『고려 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0.

김학성, 『고려 가요의 작자층과 수용자층』, 『한국학보』~제3집, 일지사, 1983.

노지영, 『삼국 속악가사의 고려조 수용 연구』, 부산대 대학원, 1999.

변태섭,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1982.

송혜진, 『한국아악사연구』, 민속원, 2000.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81.

이병도, 『한국사』~증세편, 을유문화사, 1980.

이종익, 『정도전의 關佛論 批判』, 『불교학보』, 1971.

- 장사훈, 『세종조음악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정병조 외, 『한국종교사상사』, 연세대 출판부, 1996.
- 전통예술원, 『한국중세사회의 음악문화』, 민속원, 200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I, 지식산업사, 1989.
- 조윤미, 『고려가요의 수용양상』, 이화여대 대학원, 1983.
- 차순자, 『고려속요 생성자 연구』, 계명대 대학원, 1993.
- 최정여, 『조선 초기 예악의 연구』, 계명대학 한국학연구소, 1975.
- 한영우,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 , 『鄭道傳의 人間과 社會思想』, 『韓國古典심포지움』 2집, 일조각, 1985.
- 한홍섭, 『한국의 음악사상』, 민속원, 2000.
- 양인리우(이창숙 역), 『중국고대음악사』, 솔, 1999.

<Abstract>

The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of Koreo's Sokga at the Early Stage of Chosun Dynasty

Kim, Koai-Deok

Songs of love affairs between men and women among Koreo's sokga wer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by the founders of Chosun Dynasty. In other words, the Chosun founders such as Sung-Ge Yi and Do-Jun Jung accepted only the transformation of their contents and used them for the purpose of justifying and strengthening their founding ideology. The representative songs among them are <Ssang Hwa Jum> and <Hu Jun Jin Jak>. As these songs contained the corruption and lewdness of Koreo's kings and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they were not allowed to be performed at the Koreo's court. Therefore, Koreo's songs at the early period of Yi Dynasty had far more different contents than they used to.

These transformations of Koreo's songs can be seen in the same context as a distorted view of Koreo's history. This perspective can also be understood in terms of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carried out by Do-Jun Jung and other reformers.

The ostracism of love scandals between men and women enforced by King Sung- Jong and King Jung-Jong after King Se-Jong is different from that at the early period of Chosun foundation in its circumstance and purposes.

Key Words : Koreo's Sokga, Founders of Chosun Dynasty, Early Stage of Chosun Foundation, Sung-Ge Yi, Do-Jun Jung, Love Affairs

between Men and Women, <*Ssang Hwa Jum*>, <*Hu Jun Jin Jak*>, Political Use of Music, View of Music, Transformation of Sokga, Musical Notes of Korea's History, 『*Akjanggasa*』, 『*Akhakgebum*』